

## I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주)에코프로

### ‘나눔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기업철학을 모토로 지역사회후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차전지 등 대기오염 제어관련 친환경 핵심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는 세계 선두주자 기업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청주 오창과학단지에 위치한 (주)에코프로가 그 주인공

충북도내 저출산 문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임신부 출산용품 지원 ‘마더박스 캠페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에게 ‘긴급 의료비 지원 워킹 캠페인’, (주)에코프로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운영 등 전문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불어 사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주)에코프로 이동태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개선 관련 기술개발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 이 미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계신지?

우리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맞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에코프로 임직원들과 대학생봉사단 ‘에코브리지’가 함께하는 환경정화 연합봉사활동.

출산용품 지원 ‘마더박스’· 긴급 의료비 지원 ‘워킹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 확대하며 ‘더불어 사는 기업문화 정착’ 앞장

충북 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에게는 ‘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더박스’는 아동에게 필요한 유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주시 내 소재한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복지적 경제정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해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긴급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환아를 위한 ‘워킹 캠페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후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부터는 (주)에코프로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를 운영

하며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봉사를 진행하는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해 지역내 우수인재와 대학생 자작자동차의 역량개발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대학생봉사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대학생들 리더십 및 봉사역량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긍심 향상과 기업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에코프로 장학사업, 자작자동차 지원사업, 대학생봉사단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공헌활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기업 임직원의 자발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아가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공헌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한 직원에게는 별도 시상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등 다양한 팬데믹 상황에 걸맞은 지역사회에 발전과 구축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에코프로 미션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 오창산단에 위치한 (주)에코프로 기업 전경.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영역 적절한 지원 통해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역량강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박형용 위원장(육천1)을 좌장으로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황명구 연구위원이 ‘충북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 뒤, 지정토론자로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진홍 충북대 노인복지협회장, 정경진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고광필 도 복지정책과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진홍 회장은 “사회서비스원 성과와 평가를 통해 타 서비스원과 차별화를 두고 특화사업 등을 통해 민·관 협력의 예방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준환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영역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민간사회서비스 시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센터장은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한 ‘보육’ 영역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에서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정 이사장은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용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남아있지만 타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복지위원들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충북도, 내년 예산안 6조원 첫 돌파

복지고용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1조9725억원 투자

충북도의 2022년도 당초예산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5조8382억원)보다 5.5% 증가한 6조1610억원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과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2968억원 증가한 1조67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908억원 증가한 773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뒀다.

위드코로나 사업 발굴과 완전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신성장 사업 집중투자, 지역 기반시설 확충정비,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섯가지 분야를 중점 투자사업으로 정했다.

지역경제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2710억원, SOC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정비 7810억원, 복지고용 등 포용적 사

회안전망 구축 1조9725억원, 문화체육 생활 SOC확충 및 관광생태계 전환 2170억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자연친화적 조성 8906억원 등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2억원)과 수출물류창고 지원(1억원), 지역 생산품 애용운동(2억원), 청주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3억원), 방역체계 강화(180억원) 등 28개 사업에 272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적극 재정과 건전 운영을 통해 경기회복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 단양군, 올누리행복가족센터 ‘첫삽’

### 총 220억원 투입... 대규모 주민친화 복합문화시설

단양군이 군민 여가 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주민친화 복합 문화공간인 '단양 올누리행복가족센터'의 첫삽을 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번 단양 올누리행복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8월 완료했으며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5일 사업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사업비 220억원(국·도비 113억5천만원)이 투입돼 조성하는 단양 올누리행복가족센터는 단양읍 별곡리 산 12-4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6255㎡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문화 시설이다. 시설 내부에는 공공도서관, 가

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등 4가지 문화 플랫폼 시설이 들어선다.

또 센터 내에 조성되는 2천800㎡ 규모의 공공도서관은 유아·어린이용 열람실, 청소년 열람실, 일반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문화강좌실, 강당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다누리도서관의 문제점인 장서 공간 부족과 문화·공연 장소 협소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춰 독서·문화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기존 다누리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소규모 도서 기능은 유지하되 유희공간에는 다누리아쿠아리움, 단양별벌스토토리관과 함



올누리행복가족센터 조감도.

께 체류형 관광을 견인할 이색 관광시설을 확충해 관광객의 발길을 오랫동안 붙잡을 계획이다.

가족센터(1천400㎡)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마련해 다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생활문화센터(1천300㎡)는 음악연습실, 공동체 부엌 등을 조성

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작은 영화관(720㎡)은 2개관(150석)이 조성되며 영화관의 부재로 인근 도시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돼 지역 외 소비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음성군, 영유아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개관

### 37억원 투입... 연면적 1280,66㎡ · 지상 2층 규모



음성군이 영유아들의 창의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조성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음성군이 영유아들의 창의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

해 조성한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11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

다. 원남면 조촌리에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조병욱 음성군수, 최용락 음성군의회회장 등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은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로 총 사업비 37억원(국비 1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21억 원)을 투입해 원남면 조촌리 일원 1,983㎡ 부지에 건축면적 1,280,66㎡,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2020년 4월에 착공에 들어가 지난 3월 준공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놀이시설 사용인증 획득을 모두

완료했다.

1층에는 종합놀이터, 플레이장, 방방놀이, 2층에는 유아종합놀이존, 역할놀이존, 유아볼풀존과 유아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정서·인성·체력 등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개관과 동시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시설운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용대상은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사전 예약(043-872-5909)을 통해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24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는 4천 원이고 음성군민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청주시 보건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97개에 한함), 특수식이구입비(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청주시에는 현재 442명이 등록되어 있고, 2021년 희귀질환 의료비 예산은 13억 812만 8천 원이며, 4개 보건소는 연중 수시로 등록 접

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62), 흥덕보건소(☎043-201-3362),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 “어린이 위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 취약계층 아동 100명 대상 소원 이뤄주기 프로젝트 청주시드림스타트-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 캠페인



청주시드림스타트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취약계층 아동 100명의 소원을 이뤄주는 '산타원정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드림스타트(북부지역)는 지난 19일 청주시청 직지실에 이재숙)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 '2021년 산타원정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드림스타트(북부지역)는 지난 19일 청주시청 직지실에 이재숙)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서) '2021년 산타원정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돌봄의 부재로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보내는 100명의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을 이뤄주는 '산타원정대'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줄 예정이다.

이재숙 북부지역장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기뻐할 아이들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나눔문화가 확산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물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산타원정대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동절기 난방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직접 산타가 되어 선물포장 및 메시지카드를 작성해 전달할 예정이다.

# 진천군,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오픈

### 맞춤형 일자리 · 지역 내 기업홍보 등 지원

진천군이 새로운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진천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탄력을 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은 군내 구인·구직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민간분야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등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취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진천일자리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jincheon.go.kr/job'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주요서비스로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 관내기업홍보, 민간·공공 일자리, 채용행사 안내, 면접컨설팅 등이며, 특히 맞춤형 일자리정보와 관내기업홍보, 면접컨설팅은 기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며 신설됐다.

맞춤형 일자리정보는 기존에 산재돼 있는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 취업, 창업 등의 구역으로 구분해 연령, 취업상태와 같은 구인·구직자 상황과 선택에 의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군내기업 홍보는 중소기업 취업

에 대한 구직자의 경계를 허물고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력채용과 기업홍보의 일거양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면접컨설팅은 구직자 전용 공간으로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 내 직업상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이 확인되면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직상담, 면접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정보 통합플랫폼 제공으로 일자리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소외받는 구인·구직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 홍보에 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천군, 초등학생 아침 틈새돌봄 사업 운영

### 혁신도시 거주 만 6~12세 초등학생 대상 돌봄 프로그램 · 간식 제공 · 등교 도우미 등

진천군은 도내 최초로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침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의 이른 출근 시간과 아동의 등교 시간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에 등교 전 돌봄 서비스와 등교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이 혼자 집에 방치되거나 학교에 혼자 등

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진천 혁신도시는 초등학생의 인구가 진천군 전체 초등학생의 절반에 이르는 3천29명으로(9월 기준), 맞벌이 가구가 많아 이번 틈새돌봄 사업지로 선정됐다.

아침 틈새돌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등교 시간까지 아동에게 돌봄 프로그램은 물론 간식 등을 제공하며, 등교 시 등교도우미가

학교까지 아동과 동행한다.

이용 대상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 초등학생으로 등교도우미 서비스는 옥동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차 추경예산을 책정해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부터는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도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국·도비 지원을 받으며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시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년나무4단지 다함께돌봄센터(☎043-535-2202)로 문의하면 된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 옥천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옥천군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네트워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26개 장애인·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단체와 업무협약 교육 교류·관리방안 등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기대

옥천군은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관내 26개

소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단체와 평생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업무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평생교육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군은 그간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학습 요구 반영과 필요성을 근거로 해당 시설·기관 및 단체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사전 검토를 요청, 업무 협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협조,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체계, 학습동아리 구성, 교육 운영 등 연계 방안, 평생교육 관련 정보·시설·교육자료 등 교육 교류,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관리 방안,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 발전 업무협약은 평생학습원과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및 단체가 만나서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원과 각 시설·기관 및 단체가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난 19일 군청 민원과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예방 캠페인

## 증평군드림스타트·괴산경찰서 등 관할 지역 기관 연계

증평군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난 19일 군청 민원과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제정됐다. 한국에서도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군은 괴산경찰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증평군드림스타트 등 관할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스티커 인증 활동,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서약,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홍보를 통한

올바른 양육법 개선 촉구, 아동권리보호와 신고방법 홍보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더불어 이번에는 아동의 시각을 가상으로 겪어보는 VR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VR체험을 한 주민 김씨는 "훈육으로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부모로서 다시 한 번 어른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백석현 괴산경찰서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성매매 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보호캠페인과 증평군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 전달



증평군은 16일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를 전달했다.

## 리프트 장착된 버스 1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 도모

증평군은 지난 16일 군청 주차장에서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이흥식 증평복지재단이사장, 정찬연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버스에는 특별히 리프트가 장착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가 도모됐다.

전달식 참가자들은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성열 군수는 "이번에 제작된 장애인리프트 차량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및 활동영역이 더 넓어지길 바란다"며 "증평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군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청소년지도위원 43명을 위촉했다.

#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 3년간 지역 청소년 건강한 성장 뒷받침

영동군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청소년지도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3일 군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 줄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했다.

군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영동와인터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에 청소년관련 사업에 강한 의지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도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규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다.

이들은 향후 3년 간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해 청소년 건전생활

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여건 조성, 각종 장려지원, 우범청소년과 유해환경단속,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동군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행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보호 등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 괴산군·증원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 위·수탁

## 내년부터 5년간 위생·영양 관리



16일 괴산군은 증원대 산학협력단과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괴산군은 16일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

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10월 수탁기관 심사관으로 선정된 증원대 산학협력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증원대 산학협력단은 2022년 1월부터 5년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무를 수행하며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양질의 급식문화를 조성한다.

어린이 영양·위생관리 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식단 레시피 개발·공급, 순회방문을 통해 대상별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등을 지원한다.

# 보은교육청,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빵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선물



보은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부모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행복교육센터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장애학생의 자기정체성

확립'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성공적인 사

회통합을 위해 진행된 이번 제과제빵 프로그램(쿠키 만들기)에는 보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5명과 학부모 5명이 함께했으며, 충북 장애인부모연대 보은군지회(회장 장은영)의 협조로 운영됐다.

이날 만들어진 빵과 쿠키 100여개는 보은군실버복지관(관장 고은자) 어르신들 70여명에게 전달되어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장은영 회장은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어 지역 노인분들께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을 높이는 기회가 자주 생길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SSN 충청북도 사회복지신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선 정책 제언' 발표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가운데 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운데 오른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왼쪽 두 번째) 및 사회복지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책구조 혁신·포용적 사회안전망' 등 핵심과제 제시 서상목 회장, 여야 정당에 '대선 정책 제언' 자료집 전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계 25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장은 사회복지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차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 정책거버넌스 구조 개편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첨단 ICT

를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복지' 실현,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민간이 협치하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68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주목할 만한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중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소규모 시설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지역간·시설간 복지격차 해소 등이다.

서상목 회장은 "차기 정부가 민간 사회복지계의 고민이 담긴 이번 정책 제언을 참고해 민·관 협치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상목 회장은 사회복지정책 제언 발표 후 여야 정당의 주요 관계자를 방문해 대선정책 제언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며, 서상목 회장은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함께 참석한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게 5대 핵심 정책과제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서상목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이준석 대표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대선 정책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단체들 "청년 현실 담은 정책 제시하라"

##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서 공약 제시 요구

대선을 앞두고 청년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된 공약 제시를 정치권에 요구하기 위해 38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대응 기구를 만들었다.

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18일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데도 근본적인 해결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을 호명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비(非) 대학생·취업준비생·장애

인·성 소수자·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모두 청년의 얼굴"이라며 "앞다퉀 청년을 외치며 '선심 쓰겠다' 말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형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세대의 생존 경쟁을 져터 갈등 등으로 부추기는 청년 팔이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조건희씨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는 자격증이 없거나 스펙을 갖지 않고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부실해, 노동자는 불합리를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거 취약 청년 당사자인 유지안씨는 "소유한 집이 없고 주택 임대차계약 경험이 적고 어려워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청년은 너무 쉽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논의되는 지원정책이 아니라 고졸 청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공론장에서 발굴한 청년 의제를 토대로 정책 요구안을 작성한 뒤 대통령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보낼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후보자 및 선거캠프와 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의견과 정책을 듣고 평가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충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전국 최다 지정

## 청주성모병원·영동병원 추가 지정... 총 4곳으로 늘어



충북도는 청주성모병원과 영동병원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27일 충북도청에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충북도는 청주성모병원과 영동병원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27일 충북도청에서 지정서를 전달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의료장비 보장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사업은 민선 7

기 공약 사항으로 이시종 지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이번 지정까지 포함해 총 4곳 지정함으로써 전남도와 함께 최다 보유한 광역지자체가 됐다. 이로써 도내에 산부인과를 운

영 중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6곳 중 4곳이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충북도는 내년까지 나머지 2곳을 추가 지정해 도내 전체 병원급 산부인과를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받은 병원에는 사업비 각각 1억원이 지원되며, 전동문 설치, 출입구 개선 등 시설 개선과 함께 산부인과 휠체어 체중계, 전동 분만대 및 검진대, 전동 휠체어 충전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충북(1곳), 전북(3곳), 전남(4곳), 경남(1곳), 광주(2곳) 등 16곳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 AI·IoT 활용해 임대주택 노인돌봄서비스 수준 높인다

## 국토부·LH 시범사업... "2025년까지 1만가구 서비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주거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 쌍촌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 30년이 지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에 AI, IoT 등 첨단기기를 설치해 6가지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집에 사람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간(30분), 야간(60분) 등의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이를 센서가 감지해 돌봄 관리사들에게 알려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활동, 외출, 수면 등 개인별 생활패턴 데이터를 미리 분석한 뒤 돌봄 대상자의 생활에 특이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 위급 요인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입주민의 거주질환을 미리 파악해 약물 복용 시간이나 돌봄 방문일정 등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집에 긴급 SOS 응급벨과 AI 스피커를 설치해 긴급상황이 발생했거나 건강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관리자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재난문자나 날씨, 미세먼지 등 정보도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한 치매 등으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한 입주민의 경우 사전 동의 거처 외출 시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전국에 확대 설치 중

인 고령자복지주택에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아파트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입주시키고 상층부는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을 배치한 주택으로, 올해 전국에 총 2260호가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면서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공급 예정인 고령자복지주택 1만가구에 모두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폭 확대

## 지원금 사용 기간도 출산일 이후 1년→2년으로 연장

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급보다 각각 40

만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번 제한이 없어져 모 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강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된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강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소년 지원 강화

## 사회적기업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대상 포함

정부가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기업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적기업 취업을 통해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2021년 제5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

위원회 개최'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보호하며 주거·상담·학업·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고용부는 또한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87개 사회적기업을 새로 인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수는 총 3142개가 됐다.

사회적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6만1154명이고, 이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3만6204명이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외에도 돌봄,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우수사업 1순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도민 대상 우수사업 조사 실시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업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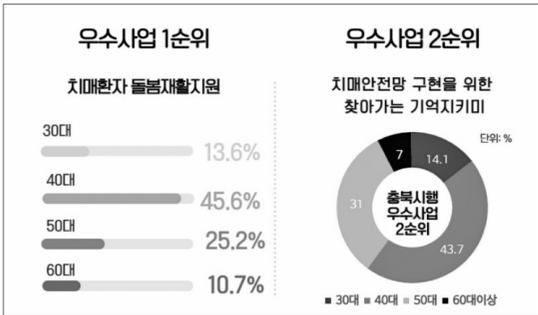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1순위는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사업으로 조사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지자체 선정 우수사업을 위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3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SE: Sampling Error)는 95% 신뢰수준에서 ±5.38%p이다.

우수사업 2순위로는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 3순위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4순위는 '비대면 맞춤형 사회복지교육 운영'으로 나타났다.

우수사업 1순위로 선정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 사업은 40대가 45.6%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50대(25.2%), 30대(13.6%), 60대(10.7%)로 나타났다.

2순위인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 지킴이 사업은 40대가 43.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3순위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40~50대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이 더 높게 응답했으며, 4순위인 비대면 맞춤형 사회복지교육 운영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11.4%p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에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업 조사 인포그래픽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모니터링위원들이 1차적으로 54개의 세부사업 중 9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으며, 9개의 사업 중 충북도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1순위~4순위까지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이화정 센터장은 "충북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탁월한 우수사업이 선정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 인권토크 콘서트 열어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는 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지가 않습니다' 주제로 인권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이순희·안종태·유응모 공동대표)는 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괜찮

지가 않습니다' 주제로 인권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로써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에 공감하고,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자 마련했다. 인권콘서트는 박미영(청주건강강자문화가족지원센터장)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공유되었고, 홍영준(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교수, 유광욱(청주시의회 복지교육

위원회)의원, 박아롱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관중석에서도 사회복지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터져나와 콘서트장의 열기는 후끈 뜨거웠다. 콘서트를 준비한 실천연대 측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는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실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 청주내덕노인복지관 5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one 캠페인 실시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길혜정)은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내 저소득 위기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제 5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one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one 캠페인은 겨울철 밑반찬 부족으로 힘들어 하시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김장김치를 모금하여 겨울 내 드실 수 있도록 김치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2017년부터 매년 청주내덕노인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행절차는 복지관에 문의하여 참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김치통을 수령, 가정 및 단체에서 김장김치를 한 후 이웃과 나눔 김장김치를 통해 담아 복지관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연락하면 복지관에서 직접 수령하여 후원자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이 된다. 한편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김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 실천에 참여하려면 청주내덕노인복지관(043-216-9810)으로 연락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 옥천군,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시기별 영양제 지원

옥천군보건소는 종합적인 임신 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시기별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사업비 5200만원을 확보

해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가입기 여성(만 15~49세)중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임신제를, 출산 후 2개월 이내 여성에게는 종합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임신 확인부터 12주

까지 임신제 3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하며, 임신 16주부터 분만 시까지는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다양한 모자 보건 및 출산 장려 지원으로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까

지 아이와 엄마가 건강하게 살기 좋은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옥천군 보건소 모자건강팀을 방문,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제작 행사를 진행했다.

#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연합봉사단 참여  
괴산군 내 취약계층 50가구 대상에 전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연합봉사단인 나우리회와 스마일 봉사단이 지난 6월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꾸러미' 제작 행사를 10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봉사

단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과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행사에 임했다. 이번 행사는 괴산군 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꾸러미보다 4가지 품목을 추가한 9가지 먹거리와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사랑의 나눔꾸러미'를 제작하여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괴산기초푸드뱅크로 전달했

다. 김영석 회장은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진 이번행사를 위해 따뜻한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시는 연합봉사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껏 준비한 나눔꾸러미가 괴산군내 취약계층에게 건강을 지키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된 '사랑의 나눔꾸러미'는 이달 중 배분할 예정이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진천군에 후원금 전달

KBSI 동행 다자녀 가정 방송·온라인 모금 2700만원 전달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진천군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는 16일 진천군청을 찾아 2천700만 원

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KBSI TV 프로그램 '동행'을 통해 소

개된 진천군 다자녀 가정에 대한 방송 모금과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 322회에 방영된 '농부가 된 소녀' 편에서 원발생 간경변을 앓고 있는 아파와 당노로 고생하는 엄마를 도와 어린 나이에도 농사일을 돕는 첫째 딸 기쁨(18) 양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바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가족의 의료비, 생계비 목적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KBSI 휴먼다큐프로그램 '동행'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질병과 가난에서 치유·재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동세탁 서비스 제공

주 1회 운영...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복지관 문의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이동세탁차량을 통해 외진 마을에 방문하여 이불세탁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음성군 9개 읍·면에 방문하여 장애, 고령 등으로 대형세탁물 관리가 어려운 가정의 이불세탁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세탁사업은 주 1회 운영되며 신청을 접수 받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평곡 3리, 원당 1리를 비롯하여 12개 읍·면에 방문하여 이불세탁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동세탁차량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와 음성군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마을의 부담 비용이 없다. 이동세탁차량 서비스 사용자는 "나이가 들어 젖은 빨래를 날기 위함인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찾아와서 세탁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이동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방안 점검… 11월 1일자로 개편·시행

종합사회복지관 등 미접종자 출입 금지 원칙… PCR검사서 ‘음성’ 확인·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추진·공동식사 금지 등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출입은 물론 외출과 면회까지 철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일자로 개편·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 ② 외출·외박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복귀 후 체온 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등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③ 프로그램 등 운영

접종완료자라면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하여 사람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실시한다.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4㎡당 1명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하여 프로그램 운영

## ④ 이용시설 내 취식

원칙적으로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다만,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맥, 도시락, 간식등 가정에서 드실수 있는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03병상이 남아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1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병상이 남아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75병상이 남아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3%로 9,2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9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10일(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이다.

##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중증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951	9,274	10,081	4,130	455	169	1,121	480
수도권	12,031	4,968	4,655	1,175	276	70	687	203
중수분	2,955	1,279	-	-	-	-	-	-
서울	5,632	2,402	2,160	559	81	34	345	99
경기	2,302	812	1,867	403	172	35	263	83
인천	1,142	475	628	213	23	1	79	21
비수도권	5,920	4,306	5,426	2,955	179	99	434	277
중수분	844	650	-	-	-	-	-	-
강원	381	310	388	250	5	2	36	21
충청권	1,102	839	1,378	673	49	31	101	62
호남권	700	432	949	635	10	6	67	54
경북권	1,206	799	1,166	606	28	24	93	51
경남권	1,527	1,155	1,271	574	82	33	125	78
제주	160	121	274	217	5	3	12	11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1.2%,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7%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 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137명으로, 이중 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1만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3,1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85명 감소하였다.

11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1,811개소), 식당·카페(3,848개소), 이·미용업(988개소), 학원(604개소)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제공

\* 증상 변화,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 추가 가능

### Q.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 대상인가?

A.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며,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 지원\*

### Q.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A.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하고 있다.

이틀토대로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1~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안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Q.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A.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의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하다.

### Q.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A.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한다”며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Q.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A.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A. 다음의 상황은 예외 사항으로 허용한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가족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가?

A.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한다.

단,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부득이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재량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한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가족 외에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 Q&A

### Q.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은?

A. ‘위드 코로나’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한다.

복지광장



황 정 구

충북도광역지활센터 사무국장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일을 통한 복지,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사업이 시작되었다.

생산적 복지란 기존 프로그램,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에서 복지대상자들이 일자리를 기반으로 교육, 훈련 및 자원연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활, 시니어, 장애인직업근로장 등을 말할 수 있다.

영국, 미국, 독일부터 한국까지 거처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생산적 복지는 상

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영리활동을 추진하는 지금의 사회적경제영역(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근간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건물이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지듯" 지금의 생산적 복지 현주소는 일반 영리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시장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일반시장에선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공공시장 부문에선 우선구매의 조레 재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영역에 밀려 생산과 동시에 판로가 막막한 상태이다.

지금의 생산적 복지 판매구조를 보면 생산적 복지기관(자활, 시니어, 장애인 등)에서는 자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사업장을 만들고 생산품 개발, 가공 및 판로를 지원한다. 생산적 복지 운영기관은 공공부문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품 판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납품하고 있는 지역 일반 영리 유통업체에 팔아 판매한다.

공공기관(학교, 병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된 운영비로 지역 일반 유통업체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판매하

공공의 딜레마

는 상향된 금액으로 납품 받는다.

지금의 판매 구매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생산적 복지기관은 생산품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재 진입을 위해 운영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학교나 공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성을 각각 달성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한 효과·효율성에 대해선 빠져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다.

생산적 복지기관의 생산품은 품질이 떨어지고, 인증이 되어 있지 않아 납품을 위한 경쟁력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생산적 복지기관의 생산품 품질은 일반시장 상품의 품질을 넘었다.

넓은 정도가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이기엔 원자재의 고급화 및 생산과정 인증이 철저함을 이루고 있다.

일반유통업자의 문제점을 제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 한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예로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을 위한 부식품 입찰을 보게 되면 생산 제조기관이 아닌 부식품 납품을 위한 유통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입찰내역에서 보면 제품의 기준 또는 인종상태가 아닌 대기업 브랜드

가 명시되어 있는 내역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불안 속에 복지와 일이라는 생산적복지영역은 암흑 속 판로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생산적 복지영역은 일반 영리 회사가 아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체도 아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며, 전문영업사원도, 흔한 판촉비도 없이 무거운 사회에 상충하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만 있다 그러다보니 생산적 복지영역의 종사자 이직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공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산적 복지영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 공공기관 납품 할 수 있는 품목 계약체계가 지원된다면 지금의 딜레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적 제한 계약체계가 사회의 역차별을 주지 않도록 민·관 심의 구성체를 통해 심의 후 제한적으로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지자체 보조금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려 "일을 통한 내일을, 내일을 통한 희망을 더불어 함께 만드는 충청북도"가 되길 기원한다.

복지포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원인 아이들



문 영 속

충북청주소년상담복지센터 위촉전문 강사

"선생님, 제 꿈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든데요" 이 말은 내가 8호 처분을 받은 여자청소년을 집단상담할 때 집단원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자신은 초등학교 때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뿐 아니라 상습적 성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때 어른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늦게 다니면 위험해, 얼른 집에 들어가" 였다고 했다. 자신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어른들의 충고 때문에 극도로 화가 나 "니 딸이나 잘 가르치라"고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른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이 청소년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고, 당시 그 아이 예전 보호받을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되었다고 한다.

청소년들과 함께 8년 여간 집단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청소년 뿐 아니라 가해 청소년의 대다수가 과거 아동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아동폭력 가해자는 부모나 친인척 혹은 양육 대리자와 같은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양육 책임자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폭력의 가해자는 25,380건으로 82.1%가 부모이며, 대리 양육자가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이 565건(1.8%)로 나타나 부모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 장소를 보면 아동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26,249건(84.9%)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 받는 아동에게 있어서 가정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곳이 아닌 것이다.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가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이 있는 경우,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성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안장애나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있지만 어릴 때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요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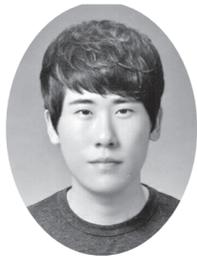
자신도 학대의 피해자였던 그들은 내재된 분노가 올라오면 통제할 방법이 없고 자신도 폭력에 노출되며 자라기에 자식에게 하는 행동이 학대라는 걸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858건(4.4%),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7,071건(87.7%)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1%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폭력의 대물림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예방과 치료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피해아동 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제는 폭력의 대물림과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탐구와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2000년 11월 19일에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에 의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 제23조에 의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다. 이를 즈음하여 자신이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 할까'라는 생각,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생각,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아이가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니 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때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



이 병 휘

청주서원노인복지관 팀장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글

을 하고 있는가?", "난 사회복지가 적성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글로 풀어 보고자 한다. 단지 조금의 욕심이라면 현재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더운 바람이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어 가던 어느 해 9월 중순, 사회복지현장에 첫 발을 내디딘 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모든 순간이 고민이고, 고비였다. 일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는 탓인지 퇴근 후 귀가와 동시에 기절할 하듯 잠들곤 했다. 8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 중 하나였고 열정 또한 어느 때보다 가득했던 때였다.

그럼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고민은 무엇일까? 아마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의 능력과 자질,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장인이란 누구나 겪는 고충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선배는 판단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사회복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사회복지사로서 능력도 자질도 부족해요" 때때로 나에게 고민을 털

어놓는 직원들이 자주 했던 말이다. 글 초반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통 짧게는 2년, 길어야 4년의 학업을 마치고 갑작스레 현장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으며 또 자신에게 그런 완벽을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때 난 그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일찌감치 사회복지라는 전공을 택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당신에게 사회복지를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나를 충동할 것이니 현재 당신의 직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말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보라. 예를 들면 현재 시설의 성격과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 발휘에 한계를 주지는 않는 지 말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생애 주기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대상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명의 의사가 모든 진료과목을 다루지 않듯 사회복지사도 조금 더 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나에게 조금 더 흥미로운 대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와 가까이 지라온 나는 나름의 이유로 대학 시절 무조건 노인복지 쪽으로 나아가길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군 복무

시절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꿈에 확신을 가졌다. 반대로 내 스스로 가장 쉽지 않고, 많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은 다름 아닌 장애인 복지였다. 사실 장애인을 만난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내 스스로 관한 차별을 했던 모양이다.

그랬던 나에게 어느 겨울,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했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가장 어려운 것이라 예상했던 장애인복지에서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때때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이 있었지만 그 곳에서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가장 큰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었으며 그만큼 만족스러웠던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때 그 시간이 내가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은 때때로 예상한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나에게 적지 않은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을 보는 고민에 빠진 사회초년 사회복지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은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며 단지 조금 더 내 능력과 전문성을 펼칠 곳이 필요 한 때일 수 있다고, 그러니 첫발을 내디딘 이곳이 사회복지 현장의 전부라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똑똑똑! 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법률상담서비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오늘은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저는 3개월전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며 변제를 독촉하지 곧 주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 중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

A.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을 득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상의 재판과 달리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에 반하여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송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행권고결정을 한 경우 이행권고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주 이내의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소액소송도 가능하나,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이행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할 것을 권유합니다.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 (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명화방송) 힘들편 전화회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 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 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welfare.org

**[KT&G복지재단] 2021년 쉼터의로비지원(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만 19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치료치료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온라인모금액을 수어 · 점자 · 틀린그림찾기게임 접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 주 발표
- 지원시기: 2022년 1월 2주 중 기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welfare.org

**[본사랑재단] 2021년 결식아동 분죽,본도시락 식사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장애, 저소득, 결손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에게 분죽, 본도시락 식사권 10매 지원(1매 5,000원 / 총 10매 50,000원 지원)
- 신청대상: 지원대상 아동의 관계 기관 및 추천인
- 접수기간: 2021.12.31.까지
- 선정발표: 신청서 확인 후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개별 연락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x8lWJ4i6)
- 문의: 02-734-6233, bonlove09@hanmail.net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 · 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자원 봉사자 모집**

**▶ 초중생 영어 학습지도**

관리센터: 에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54-9391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31-2676

**▶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99-5734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66-4761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16-1365

**▶ 마을연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285-0102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835-4288

**▶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37-5544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216-1391

**▶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11.30~12.31  
전화번호: 043-835-42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 · 스마일봉사단, 2021년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식) 소속 나우리회(회장 신홍식)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은 지난 15일 청주시 상당

구 영운동 일원에서 취약계층 가구(영운동주민센터 의뢰 4가구, 각 600장)를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들이 전달한 연탄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1.11.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준비사항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 앱 등) 또는 종이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접종완료자 (원칙차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강강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실내체육시설	○	○	○	○
노래연습장	○	○	○	○
목욕장	○	○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분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발급장소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전자증명서	COOV 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PCR 음성확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격리해제일자(원칙차)	격리 해탈 보건소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복지/만/평**

**회피**

이창신 www.bokmani.com



회피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